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바로잡으신 예수님(7)

- 읽을 말씀 마 5:48, 고전 2:6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온전한 자”가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한다는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혜’와 ‘신령한 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2장 6절의 ‘지혜’는 무엇인가? -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은 1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했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고 증거 했습니다. 2장에서는 세상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온전한 자들에게 말하는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지혜”는 그리스도를 뜻하며, 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8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지혜가 그리스도 즉 복음이라고 단정합니다. 불신자들은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으나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온전한 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바울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6절의 “지혜”가 복음과 무관하지는 않으나 단지 복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같은 구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들” 역시 전체 신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도달한 장성한 자들을 뜻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럼 “지혜”를 왜 그런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지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3).**”고 말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지혜가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더 깊이 설명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 …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14:19-20).**”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모두 지혜이고, 지혜에도 어린아이 수준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자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후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6절의 지혜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1-5절). 그리고 6절에서 만약 “지혜”가 이미 전한 것과 같다면 “그러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온전한 자들은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데, 왜 그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다시 전합니까? 또, 6절에 나오는 ‘온전한’의 다른 뜻은 ‘장성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불신자에게 하듯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바울서신의 교리와 실천이라는 구조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에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했고, 그것을 복음과 함께 지혜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단지 복음이 아닙니다(13절).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요 16:13). 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15절). 즉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분명히 진리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차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수준이 다른 온전한 자들에게 말하는 지혜가 단지 복음을 뜻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학자들이 “그런데 바울이 복음 이상의 지혜를 고린도교회에 실제로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온전한 자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포함된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분쟁과 은사에 대한 교만과 무질서 등 여러 가지 미성숙한 문제들이 있어서 더 중요하고 깊은 진리들을 전하지 못하고, 그 문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6절의 “지혜”가 단지 복음이 아니라 그보다 심화된 복음과 복음에서 파생된 각종 진리들을 뜻함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2장 6절의 ‘온전한 자들’ 과 동등한 ‘신령한 자들’ 은 누구인가?

2장 6절의 “온전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마지막으로 다뤄야 할 난제는 “신령한 자 안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포함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학

자들은 2장 6절의 “우리” 혹은 “온전한 자들” 과 마찬가지로 “신령한 자들” 이 바울과 고린도교회 성도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전체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들도 일부는 그것을 알고 2장 15절과 3장 1절의 ‘신령한 자’ 가 다른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찰스 하지, 크레이그 블룸버그).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정확한 근거도 없고 너무 작위적입니다. 2절 밖에 안 되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 안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신령한 자들” 이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뜻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2장 6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 은 문맥상 15절의 “신령한 자” 와 겹칩니다. 따라서 신령한 자들에게 전에 전한 복음과 다른 차원의 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3장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들 안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진리를 분별하고 능히 소화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젓이나 먹고 밥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3:2). 그러므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고 온전한 자들은 결코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바울이 말한 “온전한 자들” 이 바울과 전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온전한 자(장성한 자)를 뜻한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자들” 을 전체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울의 용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는 점입니다. 2장 6절을 옳게 해석하기 위해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집중한 “온전한 자가 누구냐?” 가 아닌 “온전한 자” 라는 표현 자체입니다. 즉 “온전” 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온전한” 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완성한, 완전한)” 로 바울서신에서 총 8회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두 번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롬 12:2, 골 4:12), 한 번은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는 재림과 관련해서(고전 13:10), 한번은 장성한 지혜(완전한 지혜)를 뜻할 때 사용되었습니다(고전 14:20).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 세 번은 모두 완전 성화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엡 4:13, 빌 3:15, 골 1:28). 이상과 같이 이 단어는 성도의 완전은 아니더라도 모두 온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전체 그리스도인이 온전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또, “온전한 자들” 이 전체 성도를 의미하면, 불신자와 반대되는 신자가 온전한 자라는 것인데, 그런가요? 신자를 복음을 깨달은 자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는 있어도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자주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이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것을 뜻합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들로 드린 제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히 9:9, 10:1-4). 또한, 그것은 구약성도와 비교해서 한 표현이지만, 고린도전서 2장 6절은 우리와 견해가 다른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신자와 비교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온전한 자이면 불신자는 불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한 자라고 하면 불신자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이 어린아이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불신자와 비교해서 신자를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온전한 자들” 이라는 말은 불신자와 대조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들과 대조하여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은 영적인 어린아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는 해석은 매우 그릇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들” 을 실제로 온전케 된 자들로 인정하고, 온전이 실제로 존재하고 도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나눔과 적용

온전한 자는 단지 복음이 아니라 그보다 심화되고, 복음에서 파생된 각종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온전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온전을 추구하며, 행하기 시작함으로 얻는 유익들을 나누어 봅시다.